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9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14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작별 연습**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박진하
- 8p **동구정상화 투쟁에서 얻은 것은?**
동네 이슈 / 권대익
- 12p **토크쇼, 주민자치를 말하다**
주민 공론장 / 박범기
- 23p **역사가 숨 쉬는 조선의 궁궐, 창경궁을 찾아서 ②**
이웃 동네 문화재 탐방 / 박진하
- 35p **성북동 시인들**
성북동 마을여행 / 박미산
- 46p **반짝이는 가을 소풍 성북동 문화재야행**
우리 동네 행사를 소개합니다 / 오미연
- 50p **성북동 주민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60화랑**
우리 동네 아트살롱 / 김정민
- 56p **성북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모임창조’**
우리 동네 아트살롱 / 이설

- 59p **The Nnit Club ‘목도리 전’**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 17717
- 64p **성북동에 사는 독일청년 조나단**
주민 인터뷰 / 홍승완
- 70p **나의 최애 어르신과의 인터뷰**
주민 인터뷰 / 지강숙
- 76p **십년을 살고서 비로소**
주민 기고 / 박윤희
- 80p **성북동과 함께 자라기**
주민 기고 / 정귀자
- 86p **파스타의 모든 것**
우리 동네 웨프 / 계세연
- 95p **편집후기가 왜 안 써질까**
편집 후기 / 차정미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작별 연습

박진하

혼처도 없이 택일부터 한 켄
소맥 파티에 전장 터로 떠나는 장정인양 전선야곡을 소리쳐 부르던
이별 끝에 입영검사에서 내려진 귀가조치로 난처해진 청춘처럼
언젠가 이루어질 작별을 오늘도 나는 또 연습한다.

북악산 오르는 계단, 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의 파란 불빛을 쏟아내던
들고양이가 친구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날이었다.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진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려간다.
뭔가에 홀린 듯 허공에 걸려 내동댕이쳐진 물 머금은 걸레처럼
무릎은 깨지고 팔꿈치에는 붉은 통증,
깨어보니 꿈이었다.

허망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손꼽아 헤아려 보니 벌써 7년!
취직했다 좋아하던 큰 딸은 엄마가 되고
곱디고운 중학생 소녀, 둘째는 학사 논문을 쓰는 초보 레이디,
태권소년 막내는 예비 고3,
모든 게 변했건만 나만 홀로!
지난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이 몽중이고
지난 세월이 현실처럼 분명하다.

서몽

아줌마들이 깔깔대며 웃는다.

서툰 내 모습을 동물원 원숭이 채주 보듯 좋아들 하신다.

그럴수록 찢찢매는 그 장면이 더욱 재미있다.

인생이 고달프다 그 누가 말하는가.

뒤집어 보면 이처럼 즐거운 걸,

나도 그녀들과 함께 깔깔대며 한바탕 웃어나 보련다.

취몽

아침부터 고주망태가 되어 시간도 잊고 공간감각도 상실한 채

밖으로 외치는 건 나도 그도 모를 소리뿐

정중동(靜中動)이라 멈춘 듯 한번 움직이면 태산이 무너지듯 아~ 수라장

한번 마셨다하면 입가에 묻은 탁주만 서 말은 되어야 기본,

저 대로(大路) 위에 누워 137억 년 전부터 끝없이 커져만 가는

창공을 바라보며 같이 통쾌하게 웃어볼 걸 그랬다.

그도 나도 잠시 머문 이 땅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순간!

길몽

그 옛날, 기름 냄새 가득한 그런 날이면

종류별로 색깔별로 큰 접시에 가득 담아

이웃들과

가까운 친지들과 나누던 그런 인정!

그 때의 다정스러움이 다시 돌아나

새로 담근 물김치 한 보시기로

또 다시 눈을 돌려 보니 커다란 새우 간장이, 없던 입맛이 새롭다.

막걸리 한잔 들이켠 진짜 환쟁이들이

고추 절임이나 빈대떡을 벽면 가득 그려내면 최고의 잔칫상,

다들 오시게! 그리고 다들 한잔씩 마시게!

먹을 것 많이 먹고 마실 것 많이 마셨으니

우리 한번 놀아나 보자, 거기 상쇠 양반,

풍물놀이 한번 해 보세 그도 이제 실컷 놀았으니

소리 한번 들어보세

그 놈의 축대머리 한 대목에 내 시름 얹혀 놓으니

여기가 어딘가.

뉘가 주인이고 객 이런가. 주객이 하나 되어 즐거워하던 그 순간들,

시간은 멈추고 추억은 영원히

77억분의 1과 또 다른 77억분의 1이 만나 이룬 기이한 공간

태초의 음양이 서로 끌어안고 엉클어져 천지가 창조되듯

우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상몽

임신한 청춘 한 쌍이 국밥 한 그릇, 처자의 말씨를 보아하니 동남아 여인,

하나를 둘로 나눠 다른 것보다 가득 담아 내민 국밥 두 그릇!

그들 부부와 어머니가 함께 오신 그날은 축복의 날이었다.

그 마음씨 그대로

이른 아침 새벽시장에서 찾아온 신선함을 썰고 삶고 볶고 무쳐낸 그 음식들

드실 때마다 감탄하며 맛있다고 격려해주시던 그분들!

이 땅에서 키워내고 자란 생명이

몸 속 깊이 간직된 또 다른 생명을 만나는 그 감동의 순간!

그런 만남으로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창조된다.

그런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기쁨의 환희를 온 몸으로 느껴가며

깨끼춤을 춥시다. 제자리깨끼를 시작으로 엇 썰기로 나아가다 신이
나면 우리 다함께 장삼을 휘두르며 노랑깨끼 춤이나 춥시다.

파몽

우리 예법에 이별하는 법이 있으니
호돈(好遯)과 가돈(嘉遯) 그리고 비돈(肥遯)이다.
떠날 때 아쉬워말고 떠남을 기꺼이 하며
좀 더 이별이 아름다워 질 수 있게 함이 옳은 작별법이니
벼나 과일이 익으면 추수를 해야 하듯
때가 되면 모든 게 떠나야 하듯
자연스럽게 떠나는 게 최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다른 작별 연습을 한다.

혹 어느 시점, 문득 디미방 앞에서!
지난 시간만 있고 지금은 사라진 그 공간을 만나거든
물거품의 흔적을 찾기보단 그저 흘러간 세월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사랑을 가꾸어 가시길!

넌 끝났니? 난 아니야
아직 가방 끈이 돌아야!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창간호가 만들어지던 2013년 8월에 성북동에서 디미방
(知味房)이란 상호의 국밥집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에 동소문동으로 옮겨 고등
어구이 등을 메뉴로 하는 조그마한 한식당으로 계속 운영하다 만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영업종료를 선언했으나 성립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해서 그 조건의 성립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조금은 이른 감이 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네 이슈

동구정상화 투쟁에서 얻은 것은?

권대익

너른바위는 구민회관과 동구여중 사이에 있다. 지금은 철조망이 쳐지고 학교 밖이지만 예전엔 동구학원의 소유라 야외수업 장소로 이용하곤 했었다. 이곳은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 삼선교, 혜화문, 종로를 볼 수 있는 곳이라 가을이면 야외학습을 핑계로 작은 소풍을 오곤 했던 곳이다.

오늘 근무시간임에도 학교 밖 너른 바위에 혼자 와 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구정상화 과정에서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동구학원은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학교 행정실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선생님을 수차례에 걸쳐 해고를 했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

영하고자 임용된 교장을 해고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8년 해고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의 소청(교사가 징계를 받으면 바른 징계인지 확인을 하는 행정절차)과 법적 판단을 거쳤음에도 법인에서는 나를 비롯한 3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수차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에서는 막무가내이다. 사립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연히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작년 유치원 3법 제정 시 알려진 것처럼 사립학교가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인이나 운영에 대하여 공적 통제를 받지 않게 하여 비리의 온상이 되게 하는 악법 중 악법이다. 사립학교법은 회계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당연히 퇴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 포장을 하여 벌이 아닌 포상을 하여도 국가 기관(교육청)에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한다.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당연히 생각되는 이것도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었고 그 반발은 엄청났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일부 권력, 가진 자들의 소유물로 전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가 동구에서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법이 만들어 졌다. 회계부정과 같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도 당연 퇴직 조항이 신설된다거나 비리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선택도 아닌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헌법소원을 낸 것도 그 성과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교육의 장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구 투쟁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해직교사들의 복귀시점은 암울하다.

너른 바위에서 바라본 동구는 평화롭다.

교사로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학교란?”이다. 교과서에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이다. 과연 학교, 사립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본 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지만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요구한 동구정상화는 무엇인가?

학교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라면 비리 당사자를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과 공익제보자가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요구한 학교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사립학교는 민주화 될까?

비리당사자를 학교에서 쫓아내지도 못했고 공익제보자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럼 우린 진 것일까? 승리하여 모든 것이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리 쉬운 싸움이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

동구정상화 과정에서 우린 무엇을 얻었을까?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구정상화 과정에 관심이 많다. 학교(교사)는 변하여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사학 민주화 과정에서 미약했던 교육공동체가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때문이다. 지역, 학생, 학부모들이 당사자인 교사,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사학 투쟁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주목한다. 동구정상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 시의회 체험학습, 헌법소원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실제 동구여중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공동체가 살아나면서 학교를 살리고 더 단단해 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하고 변화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도 변할 것이다. 어우러지며 합쳐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만들어 지듯 우린 이런 경험을 살려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학교 본연에 충실하여 더 나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이 연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투쟁하였으면 한다. ㉠

※ 이 원고는 2019. 9. 27.(금)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로 송고되었고, 이후 권대익 선생님은 복직하였습니다. 원고를 청탁하게 된 배경, 투쟁 과정에서의 소회 등을 원고로 작성해주십사 요청드린 것이라 그 취지를 살리고자 보내주신 원문을 실습니다.

-

권대익은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동구여자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2017년 5월 동구학원정상화를 위하여 공모교장으로 일하다 2018년 1월초 해직을 당하였다. 현재는 2019년 10월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힘으로 다시 동구여중 교사로 복귀하여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주민 공론장

토크쇼, 주민자치를 말하다

〈성북동 지역사회가 바라는 주민자치회는?〉

기록 | 박범기

정리 | 편집위원회

성북구는 2017~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를 시작으로 올해 8개 동에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성북동은 그 중 한 곳으로 3~6월 위원 모집 절차와 6~7월 주민자치학교, 8월 공개추첨식을 거쳐 최종 선발된 총 50명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단계 첫 실시부터 2단계 확대까지 2년여의 터울이 있었고, 2단계 지역에서는 그 시간 동안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사전에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정작 모집과 교육, 추첨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도 주민들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학습하고 탐구하며 성

북동 지역사회가 바라는 주민자치회의 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그리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행정기관이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방향의 설명회로, 당사자 중심의 소통과 토론이 일어나는 공론장은 아니었습니다.

성북동 주민모임으로서, 그리고 지역 잡지를 간행하는 마을미디어 단체로서 성북동천은 지역사회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발대식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론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토크쇼, 주민자치를 말하다〉는 성북동천과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공동 주최·주관으로 9월 23일 저녁 7시에 성북동 주민센터 5층에서 열렸습니다.

※ 서울형 주민자치회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축적된 마을, 자치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범 사업 실시지역의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소되고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설치, 운영됩니다.

- 비전 : 동 지역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목표 :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내용 출처/참고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핸드북 설명자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자 **김경서**(이하 ‘사회자’) :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서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임정숙(이하 ‘임’) : 저는 12년 전에 성북동에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마을계획단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이번에 추천으로 위원이 됐습니다.

김육영(이하 ‘김’) : 성북동에서 산지 33년 됐습니다. 지난 8월까지 주민자치 위원장을 3년 반 정도 하고, 지난주에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육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림(이하 ‘정’) : 종암동 주민자치회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들어간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한동네에 살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았었는데, 마을에 대한 기억을 잃는 게 저한테는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동네에서 오래 살 계획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이 커서 본인들이 떠날 때까지요.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승완(이하 ‘홍’) :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 홍승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주민자치회 위원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데요. 희생정신과 굳은 의지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습시다. 다만 예전부터 성북동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마을계획단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과

정이 있었습니다. 임정숙 위원님께서 마을계획단 부단장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임 :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장터>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미니정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골목에 꽃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플러스 예술가> 라는 그 또한 성북동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 하셨어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사회자 : 많은 마을계획단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된 분들도 있죠?

임 : 열세분 정도 됩니다.

사회자 : 보람도 많지만 힘들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임 : 저는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해왔고 봉사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에 재능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회자 : 주민자치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이 있었는데요. 김육영 위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꽤 오래 하셨죠?

김 :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 된 게 17년 정도 됐고요. 위원들도 임기가 있어서 저는 위원을 2년 위원장 활동을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사회자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회장으로

로 선출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 :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임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봉사가 체질인 것 같아요. 저도 15년 정도 봉사를 해왔는데요. 봉사를 하면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침부터 구청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조금 전에 부랴부랴 여기에 왔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할 일도 많고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민자치회가 활기가 느껴질 것이라 봅니다.

사회자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나요?

김 :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사회자 :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분에 비해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 : 마을계획단 분은 얼굴은 여러 분 알고,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장으로 참여도 해봤기 때문에 마을계획단 분들하고도 몇 분 빼고는 대부분 거리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 종암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할 때는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연령대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조금씩 빨리 끝나요.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활

동을 하거나 마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가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젊은이들은 ‘어른들과는 이야기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힘들어도 8시쯤이나 7시 반쯤에서 시작을 해서 최소 1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이 저녁밥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오래 안 살고 불만 많은 위원들이 있더라도 잘 보듬어 주세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같이 살면 어렵잖아요. 각양각색 다른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 분들이 어울려야 우리 마을의 색깔이 되는데요.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양쪽에 다 어울려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고, 애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자 : 홍승완 위원님께서서는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성북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홍 :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계획단 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시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나름 성북동 주민으로서 동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제법 많았는데도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 현안에 대해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주민자치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자 : 결국은 하고 있는 활동을 지역 주민에게 잘 알리고, 위원 사이에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도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접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공론장이 대안이다. 임정숙 위원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위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임 :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늙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입장을 모르죠. 몰라서 잘못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듬으면 별 문제가 없고 젊은이들이 뛰는 행동, 어른에 대해 불손한 면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김육영 회장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려면 어떤 소통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김 : 나이 적은 분은 나이 많은 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어느 순간 멈춰놓고 내 잣대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홍승완 위원님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어린 축에 속하시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홍 : 저희 세대 위쪽으로는 경제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세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차이의 간극이 심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 어떨까요. 한 개인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소통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종암동 이야기를 들어보죠. 2년 차 활동하신 입장에서 갈등을 많이 겪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 : 지금까지 세대 간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요. 세대가 비슷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사이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면 갈등이 유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를 했을 때 혼자 결정하거나 일부의 의견만 갖고 그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갈등이 유발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고,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 주민자치회에서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주민세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커지는데요. 회장님께서 성북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회의만 진행을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책임과 권한이 있고 주민세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종암동, 동선동에 계시는 회장님 과도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태껏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봉사도 뭘 알아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늦깎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대

학교 2학년을 다니고 부동산학과/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에 많은 자원들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역량을 다 끌어내야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견을 되도록 들어보고 그걸 한 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전문가들에게도 어떤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회자 : 곧 성북동 주민자치회를 발족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기대되는 바,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원하시는 성북동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정말 많을 겁니다. 차근차근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반면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다수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염두에 두고 고민은 해야겠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새겨들겠습니다. 관에 요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있고 그 분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홍 : 주민자치회가 일종의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주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결국은 다수결로 의결을 하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에서 만큼은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자치지원관¹⁾이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지원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회자 : 성북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추천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범기는 문화연구자이자 독립연구자이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성북동에 살게 되면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알게 되 종종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맡곤 한다.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서는 각 동에 동자치지원관을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전환 및 안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북동에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코디가 그 역할을 맡는다.



이웃 동네 문화재 탐방

역사가 숨 쉬는 조선의 궁궐, 창경궁을 찾아서 ②

박진하

왕의 사무 공간, 문정전 그리고 숭문당

드디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궁전 답사를 시작해보려 한다. 첫 번째 답사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문정전이다. 여긴 왕의 집무실로 즉 편전으로 만들어졌다. 동쪽의 행각은 옛 모습을 되찾아 서가래 끝에 새겨진 꽃무늬 단청 장식까지도 아름답다. 지대가 높아 장방형의 석대를 4단으로 쌓아 굳게 다진 터전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길게 이어진 행각 사이로 문정문을 중심으로 좌우의 문을 추가하여 3개의 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 가운데 문을 향해 만들어진 계단은 태극과 구름무늬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니 왕이 출입하던 궁문이었으며 신하들은 좌우에 있는 문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중문 위로 높은 솟을 대문을 설치하고 다른 문보다 높이 더한 것도 왕의 가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한 까닭일 것이다. 이 궁문에 오르면 왼쪽으로 붉은 벽돌 담장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남향집으로 건축되어진 건물이 문정전이다. 궁문과 건물의 좌향이 서로 다르다. 전체적으로 창경궁은 동향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남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남면지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제왕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게 궁중의 예법이다. 그래서 이 건물은 남향이다. 허나 이 궁전이 다른 편전에 비해 그리 화려하거나 웅장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런 까닭에 이 건물의 크기를 확대하고 기둥은 붉은 주철은 한

대형 원주로 바꾸려는 논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정전이 2개가 되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에 밀려 이만큼으로 족해야 했다. 겹치마와 2개의 공포, 양 끝이 날렵하게 올라간 팔작지붕 밑에 3칸 크기의 편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용상과 후면에 있는 일월오봉도가 이곳이 왕의 사무공간이었음을 알려주는 상징물이다.

여기가 사도 세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 이 문정전은 편전으로보다 혼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에도 여긴 휘령전이라 하여 영조의 첫째 부인인 정성왕후의 신위가 모셔져 있었다. 이 왕후는 사도 세자의 법적인 어머니였다. 세자를 불러 이 정전의 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이상한 말을 한다. 여기에 죽은 왕후의 혼령이 나타났다. 그녀가 말하기를 세자가 모반을 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고하고 있단다. 이런 다소 황당한 상황 속에서 사도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죽은 왕후의 혼령 고변을 근거로 세자에게 죽을 것을 명하며 칼을 던져 준다. 결국에는 찔뒤흔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굶어 죽게 한 것이다.

이 정성 왕후란 분은 달성 서씨로 첫날 밤 영조로부터 소박을 맞은 여인이었다. 신방에 들인 왕후를 보고 영조가 “손이 참으로 예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왕후의 답변이 “저는 좋은 부모님은 만나 어려서부터 굶은일을 하지 않아 그런 가 봅니다.”라고 했단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온갖 잡일을 도맡아하던 어머니의 과거를 비대어 자기를 비하하려는 말로 오인하게 되었다. 그 후로 두 번 다시 이 왕후를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하는 그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세자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주 위에 잔디를 깔아 덮어 두도록 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돌아다니며 해코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처방이었다 한다.

창경궁의 정전, 명정전

동향으로 좌향을 선택하여 만들어진 명정전은 가장 오래된 정전이다. 앞으로 탁 튀인 마당 위로는 왕이 다니는 어로가 보이고 좌우로는 품계에 따라 신료들이 정렬해 있던 품계석이 아직도 그들의 품계에 따라 나란히 두 줄로 서있다. 그 바닥은 돌을 거칠게 깨서 만든 박석들이 깔려 있다.

이 넓은 궁전 뜰에서 첫 번째 계단을 이용하여 밑에 있는 월대로 올라선 후 다시 한 번 두 번째 계단을 활용, 걸어 올라가면 드디어 명전 전에 이르게 된다. 이 디딤돌의 중앙에는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으며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삼도가 되게 하였다. 이 중 가운데 있는 어도는 가마를 타고 거동하는 왕의 이동을 고려하여 폭을 정한 것이다.

이 명정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웅장한 건물이다.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자기가 가진 최고의 솜씨를 뽐내 지은 건축물이기에 하나같이 아름답고 화려하다. 정전을 살피는 필자를 보고는 옆에 계시던 여자 분이 말씀하신다. 이 문지방에 심어둔 넓게 마름모꼴로 퍼진 쇠판을 가르치며 ‘이것이 문짝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예쁘지 않아요.’라고 말씀 하신다. 또 문지방 끝에 달린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그건 문을 닫아 고정시킬 때 이걸 세로로 돌리면 잠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열 때는 가로로 풀어 열 수 있다 하신다. 이처럼 작은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간이라 하신다.

와~ 이게 웬 황제인가 싶어 물어 본다. 저 어탑 앞 천정에 떠있는 두마리의 봉황과 구름무늬 조각은 단단한 실로 매달아 둔 것인가요? 그렇단다. 요즘의 모빌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단다.

선생님의 수업은 계속된다. 저 큰 원주 밑과 초석 사이로 조그만 흠이 보이지요. 그건 여러 용도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저처럼 큰 소나무는 3백년이상 자란 나무랍니다. 저걸 세울 땐 기둥 위에서 추를 내리고 이

흙과 일치되도록 해서 수직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 밑의 초석은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돌 다듬기를 하고 나무기둥 밑은 오히려 하게 다듬어凹凸식으로 서로를 꼭 물고 서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A 지진 때에도 한옥 건축만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런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무가 썩지 않도록 그 사이에 백반과 소금을 넣어두는데 그것의 흔적이 저 흙입니다.

이 커다란 원주는 아직까지 단청을 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청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나무는 살아서 3백년, 이곳으로 옮겨져 4백년이 되었으니 도합 7백년이 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오셔서 이 나무 가까이 얼굴을 대고 향기를 맡아 보십시오. 그럼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맑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또 묻는다. 저 용상에 오르는 좌우 옥계의 측면, 즉 계단 면석에 새겨진 꽃은 목련인가요? 아니요, 그건 연꽃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지요. 그 까닭은 보통 대부분의 식물이 꽃이 진 후에 열매를 맺는데 반하여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연이어 귀한 자식을 낳으라.’는 상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어좌 대를 감싸고 있는 난간의 귀퉁이에 세워진 어미기둥의 상부에 있는 연꽃 봉오리 장식을 가르치며 저 봉오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디테일의 묘미이다. 이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문화재 답사를 재미있고 뜻깊게 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수수께끼를 찾아보는 건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정전의 역사적 의미만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다. 이 정전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즉위식이 나 국혼과 같은 가례식이 있을 때 사용되어진다.

이 명정전은 영조가 정순왕후와 결혼을 할 때 그 의식이 행해진 곳이다. 영조가 66세 때 15세의 어린 소녀와 정혼한 것이다. 이 소녀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적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사도세자의 법적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 결혼으로 당시의 정치 지평이 달라진다. 그 때까지만 해도 혜경궁 홍씨가 세자빈이 되면서 풍산 홍씨 집안이 노론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안은 세자빈이 되기 이전에는 과거 시험에서 낙방만 하는 그런 선비이었다. 그러던 것이 상황이 바뀌어 급제도 하고 고속 성장을 하면서 영의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정순왕후의 집안인 경주 김씨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아무리 아끼고 좋아한다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마누라에 비할 수 있겠는가. 어린 왕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맘을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순왕후와 영조가 결혼을 한 시점은 사도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지 10년이 되는 시기이었다. 말이 대리청정이지만 무엇 하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독단으로 결정하면 니가 왜 맘대로 결정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되면 ‘그거 하나 혼자 처리하지 못 하느냐!’라고 타박을 한다. 이러니 문제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영조는 문치를 우선하지만 사도세자는 문치 못지않게 북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무술에 대한 깊은 연구도 있었다. 즉 사도세자가 모든 정사를 대리하던 기묘년에 12가지 기예를 더 넣어 편찬한 무예신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의 특징은 전쟁을 대비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무예를 발전시킨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뿐이라 화약이나 신무기에 대한 관심도 컸다 한다. 당시 이런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세자는 북벌을 가장 큰 정책 이슈로 내세운 효종을 존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고조부이신 효종이 만든 청룡 연월 도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다한다.



또한 노론과 영조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소론의 제거에 대해 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문제이다. 당시 영조는 경종의 독살설을 내세워 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대는 소론 세력들까지도 아우르는 정치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를 왕이 아닌 나라라고 부르는 이들을 향해 한없는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영조의 증오심을 부추긴 것이 노론이었다. 그러한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세자의 시도는 영조와 노론에게 있어서 위협적이었던 것이었다.

또 영조는 검약한 선비 스타일로 금주를 명하게 되나 사도 세자는 호방한 성격이어서 술을 좋아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 영조로부터 세자는 멀어지게 된다. 혜경궁 홍씨가 세자빈이 된 것을 계기로 노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풍산 홍씨들은 오히려 세자로 인해 온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점차 정순왕후의 등장으로 경주 김씨의 파워가 크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은 더욱 더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참극이 영조와 정순왕후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함인정과 외전의 나머지 공간들

이 정전의 오른쪽 후면에 있는 정자가 함인정이다. 그래도 팔작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의젓한 건물이다.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성균관의 학생을 초빙하여 접견하거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물들을 만나기도 했다한다. 지금은 남쪽으로 계단과 현판이 설치되어 있어 정면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동쪽으로 출입한 듯하다.

대부분의 창경궁의 외전들이 동향으로 지어진 까닭은 무엇인가? 다른 궁궐은 남향으로 지어졌으나 이 창경궁만 유일하게 동향이다. 주례(周

禮)에 따라 군왕은 배북남면(背北南面)하여 통치해야하기 때문에 궁궐의 좌향(坐向)은 반드시 남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선 초기 궁궐 신축을 담당했던 정도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궁궐만은 동향으로 지어졌다.

이는 고려 말 공민왕이 천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의 서울인 남경에 궁궐을 신축했다는 기록과 관련이 있다. 그 궁전이 바로 창경궁의 전신인 수강궁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례와 같은 예법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배산임수라는 풍수지리를 중시하였다. 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그 땅이 좋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응봉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산줄기를 후면에 두고 앞으로는 옥천교가 흐르도록 배치하기 위해서는 동향으로 궁궐을 배치해야 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궁궐의 위치를 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펼친 무학 대사의 의견도 이와 유사하다. 즉 무학은 한양의 좌청룡 산줄기의 허약함을 비보하기 위해 궁궐을 동향(東向)으로 하는 인왕주산론(仁王主山論)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금의 창경궁을 일러 말한 것은 아니나 풍수지리를 중시한 까닭에 그 지형을 고려하면 때론 동향으로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 초기에 창경궁을 건축할 때 기존에 있던 건물의 배치나 좌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정자의 마루를 살펴보면 그 안쪽에 위치한 중앙의 마루높이가 그를 둘러싼 사방의 마루보다 단이 높다. 천정도 이와 같이 왕이 거처하던 가운데 공간은 다른 곳에 비해 높게 하여 격을 달리함으로써 위계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 천정의 단청도 한결 더 분명하고 화려하다. 이 함인정의 전후좌우에는 고개지의 한시 ‘사시(四時)’를 새겨 걸어 두었다. 그 좌향에 따라 동쪽에는 봄을 노래한 구절을, 서향에는 가을을, 남쪽에는 여름을, 마지막으로 겨울을 주제로 한 시구는 북쪽에 배치하고 있다.

春水滿四澤 (봄에 물은 못마다 가득하고)

夏雲多奇峰 (여름 구름 묘한 봉우리 많기도 해라)

秋月楊明輝 (가을 달은 높이 떠 밝게 비추고)

冬嶺秀孤松 (겨울 언덕 소나무의 외로움이 아름답구나)

이 함인정의 북쪽에 앉아 앞을 향해 보면 내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 전면에 놓인 궁전이 환경전이다. 즉 왕이나 세자의 침실이다. 이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전형적인 이익궁 구조의 팔작지붕 집으로 품위가 한층 돋보인다. 가운데 3칸은 대청마루를 앞에 두고 뒤로는 분합문으로 되어 있어 활짝 열어서 뒤쪽의 뒷마루까지 개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분합문을 서까래 밑에 내려진 들쇠에 걸어 올려 놓으면 대청은 열린 공간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며 겨울철에는 분합문을 닫아 한기를 막고 대청공간을 아늑한 실내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대청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뒷면에 있는 뒷마루에는 언제나 가보면 지친 다리를 풀어놓고 쉬어가는 관람객으로 가득하다. 또 이 건물이 주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면 전면에서 다가갈 때는 그 높이가 꽤나 높아 7개의 계단을 다 딛고서야 올라갈 수 있으나 뒷쪽에서는 기단석 1개만 넘으면 바로 건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건물 뒷면은 높고 앞면이 낮은 지형을 그대로 두고 그걸 잘 활용한 것이다. 이 환경전에서도 또 하나의 비극이 있었다. 소현세자의 죽음이다. 이 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9년 만에 돌아와 3개월 만에 학질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이 든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죽고만 것이다. 그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자는 환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을 얻은 지 며칠 만에 죽었다. 시체는 온몸이 새까맣고 뱃속에서는 피가 쏟아졌다. 검은 천으로 얼굴의 반을 덮어서 옆에서 모시던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 낮빛은

중독된 사람과 같았는데 외부 사람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임금도 알지 못했다.’

당시 아버지인 인조는 만약 세자가 귀국하면 청나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라는 요구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의심했다. 또한 세자는 청국에 있을 때 서구의 과학 문명을 깊게 연구하여 선진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서울에 돌아와 청나라의 정황과 서양의 책과 기계를 보여주며 서양 문물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 인조가 소현세자의 얼굴로 벼루를 던져 다치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세자는 아버지인 인조의 지시나 아니면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독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이 소현세자의 세자빈도 다음 해에 사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로 모두 추방해 버렸던 것으로 보아 이런 독살설의 확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정적으로 판단되며 아들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냉혹한 조선 왕조사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
박진하는 동소문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본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마을여행

성북동 시인들

한용운, 백석, 조지훈, 김광섭 시인을 중심으로

박미산

성북동 이름의 어원은 한양도성(城)의 북(北)쪽이란 뜻에서 왔다. 조선시대엔 왕이 누에 사육이 잘되도록 빌며 제사를 지내던 선잠단지(先蠶壇)가 있었으며, 풍경이 좋아서 양반들의 별장이나 저택이 몇 채 있었으나 성북동 대부분이 과수원과 밭이었다. 일제강점기까지 성북동은 본래 한적한 산골이었다. 성북동은 1960년대 삼청터널과 북악산길이 개통된 뒤 서울 도심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성북동 개발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시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성북동 비둘기』(1969, 범우사)이다. 이 시는 서울의 성북구 성북동이라는 구체적 '장소'가 폭력적으로 개발되어 적대적이고 비정한 장소로 변화되는 장소 상실을 노래한 작품이다. 1960년대 도시개발은 사람들로부터 거주할 장소를 빼앗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업을 박탈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평화마저 빼앗아 가버렸다. 시인은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산도 잃고 삶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잃었다고 노래했다. 성북동 비둘기는 '성북동'이란 구체적 장소를 통해 폭력적 도시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원주민의 뿌리 뽑힌 느낌을 노래한 것이다.

시인 김광섭(金光燮, 1905~1977)은 1961년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번지 34호에 집을 지어 입주했는데 이곳이 그의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의 산실이다. 4호선 한성대입구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성북구 성북동 168번지 34호에 김광섭 시인이 살던 집이 있다. 지금은 그 자리는



연립주택이 들어서서 김광섭 시인의 집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성북동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성북동 142-1번지 가로에 조지훈 ‘시인의 방-방우산장(放牛山莊)’ 표지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다. 방우산장 조형물은 파빌리온 형의 대리석 벽과 창호 낙화지 없는 격자문이 시인이 살았던 집 방향으로 열려있고, 그 위로 우리 전통 가옥의 처마와 그 아래에 마루가 있으며 마당같이 조성된 곳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다. 대리석벽 바깥에는 시인의 시 「낙화」가 새겨져 있다.

꽃이 지기로서니 / 바람을 닦하랴 /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고 // 귀촉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다가서다. // 촛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 하이얀 미단이가 / 우련 붉어라. //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 아는 이 있을까 / 저어하노니 //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낙화」(3인 공동 시집 『청록집』, 1946)

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속의 분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사람이라. 조지훈(1920~1968)시인은 무엇보다 낙화를 찬미할 줄 아는 시인이다.

시인은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주렴 밖으로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있다. 돈았던 별이 하나 둘 스러지는 새벽, 먼 산의 소쩍새가 울고, 뜰에는 꽃이 지고 있다. 달빛이 고즈넉해서 꽃 지는 그림자가 미단에 비친다. 방 안의 촛불을 꺼야만 지는 꽃이 빛을 발한다.

조지훈은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이다.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



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시인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 등 그가 남긴 시집들은 모두 민족어의 보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 「낙화」, 「고사」와 같은 시들은 지금도 널리 읊어지고 있는 시들이다. 매천 황현과 만해 한용운을 이어 조지훈은 지조를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의 시신을 만해가 거두어 장례를 치를 때 심우장에 참석한 것이 열일곱(1937년)이었으니 조지훈이 뜻을 확립한 시기가 얼마나 일렀던가를 알 수 있다. 조지훈은 조부 조인석과 부친 조현영으로부터 한학과 절의를 배우면서 민속학과 역사학을 자신의 전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원고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국어학 지식이 더해져서 형성된 조지훈의 학문적 바탕은 현대교육만 받은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넓고 깊었다. 광복이 되던 10월에 한글학회 국어교본 편찬원이 되고 11월에 진단학회 국사교본 편찬원이 되어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국어교과서와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였고 그 이후 1968년 기관지 확장으로 작고하기까지 조지훈이 저술한 『멋의 연구』 『한국문화사서설』 『한국민족운동사』 『시의 원리』 등의 저서를 남겼다.

조지훈은 근면하면서 여유 있고, 정직하면서 관대하고 근엄하면서 소탈한 현대의 선비였다. 매천이 절명의 순간에도 ‘창공을 비추는 촛불’로 자기의 죽음을 관조하였듯이 조지훈은 나라 잃은 시대에도 ‘태초에 멋이 있었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초연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 조지훈에게 멋은 저항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녀야 할 삶의 척도이었다. 조지훈은 호탕한 멋과 준엄한 원칙 위에 재능과 교양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인물이었다.

‘시인의 방-방우산장(放牛山莊)’을 지나 성북구 성북로29길 24번지에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이 있다. 조지훈이 열일곱에 일송 김동삼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갔던 심우장(尋牛莊)은 만해 한용운이 1933년부터 1944년까지 만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다.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본관은 청주, 본명은 정옥이다. 용운(龍雲)은 범명이며, 만해(萬海, 卍海)는 아호이다. 만해는 1919년 승려 백용성(白龍城) 등과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 발기인 33인 중의 한 분으로 <3·1독립선언문>의 공약 삼장을 집필했다.

한국 근대시의 형성에 참여한 시인들은 대부분 근대시의 형성 근거를 유학 활동을 통해 또는 국내에서의 서구 교육을 통해 쌓았다. 최남선이나 이광수는 다 같은 동경 유학생이며 우리 근대시의 형성 전개가 「창조 創造」「폐허 廢墟」「백조 白潮」「금성 金星」등의 동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다수의 유학과 또는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이수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사실상 그들의 지적인 세계의 형성이 서구식 교육을 통해 구축되었음을 뜻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용운은 이들과는 다르게 재래식 서당교육을 받았다. 만해는 6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18세까지 동네에서 서당 훈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구 근대시의 형식을 들여온 주요한 김억 등과의 유학파와는 차별되게 만해가 정식으로 배운 것은 한시였고 그가 지은 것은 근대적 자유시보다는 한시가 더 많다. 다시 말해 최남선이나 주요한이 유학 후 신문물을 전파하겠다는 선구자적 이상으로 근대시를 썼다면 한용운은 한시의 학습과정 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민중들에게 알리고자 했으나 곤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승 불교적 포교 정신으로 한글 자유시 『님의 침묵』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김억이 1924년 번역한 타고르의 『원정』은 만해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타고르의 『원정』과 만해의 『님의 침묵』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산문적이

라는 점과 시집 구성이 『원정』은 85편과 『님의 침묵』은 88편으로 비슷하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1925년 8월 29일 백담사에서 탈고되었다. 이때는 만해가 3.1운동으로 인해 투옥된 뒤 3년 만에 출옥하여 새로운 사상적 실천적 모색을 할 때이다. 역사적 사건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볼 때 3.1운동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려는 의지가 『님의 침묵』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처음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가 시베리아와 만주를 순례한 후 28세 때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하여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1910년에는 불교의 변혁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고,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낸 뒤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에 가담하였으며 1931년에는 조선불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성북동은 원래 성 밖 마을 북정골로 한적한 동네였다. 만해는 3·1운동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와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33년에 승려 벽산(碧山) 김적음이 자신의 초당을 지으려고 준비한 땅 52평을 내어주자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등 몇몇 유지들의 도움으로 땅을 더 사서 집을 짓고 ‘심우장’이라고 하였다.

‘심우장(尋牛莊)’이란 명칭은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 가지 수행 단계 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라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옥 중에서도 특이하게 남향(南向)이 아닌 북향(北向)으로 짓게 된 이유는 한용운 본인이 남향으로 하면 돌건물(조선총독부)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한용운은 일제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한때 최남선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아는 육당(최남선의 아호)은 죽었으니 돌아가라’며 만나지도 않았다.

일본 형사가 한용운을 일제의 편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왔었다. 그 형사는 만해가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성북동의 토지 20만 평을



그냥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유혹을 제시했지만, 만해는 호통을 치며 왜 놈한테 돈 받을 일 없으니 나가라며 보내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만해는 겨울철에는 흑한, 여름철이면 흑서에 시달렸지만, 그는 이곳에서 태연하게 지냈다. 그는 해방 1년 전인 1944년에 조국 해방도 못 보고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심우장에서 내려와서 대사관로를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길상사가 나타난다. 길상사는 시인 백석의 연인 자야 여사가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도심의 사찰이다.

백석이 함흥 영생고보에서 기생 진향(자야)을 만난 것은 1936년 가을, 동료 교사의 송별회에서였다. 그는 진향을 만난 첫 자리에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라고 말하였다. 어느 날 책방에서 진향이 「자야 오가(子夜鳴歌)」라는 제목이 붙은 당시선집(唐詩選集)을 사 왔다. 백석은 그 책을 펼쳐 이백의 시를 읽더니 진향에게 “당신에게 아호(雅號)를 하나 지어줄 거야. 이제부터 ‘자야’라고 합시다.” 시 속의 자야는 중국 동진(東晉)의 여인으로 변방에 병역을 위해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애타게 태운다. ‘자야’라는 이름은 진향의 삶에도 비슷한 숙명을 드리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백석과 자야와의 사랑은 백석의 부모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백석은 부모의 강권으로 혼사를 치렀고 진향은 고향인 한성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백석과 진향은 몇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는데, 그 사이 백석은 두 번의 혼인을 하고도 진향에게 돌아왔다.

진향이 청진동에 숨어 사는 3개월쯤 뒤에 백석의 친필 메모를 든 심부름꾼이 찾아왔다. 그리고 백석이 나타나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함흥 천리길로 돌아갔다. 백석이 가면서 남긴 누런 미농지 봉투에 친필로 쓴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가 들어 있었다. 이 시를 읽고 자야는 백석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앓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밤 힌당나귀타고
산골로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벌서 내 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것은 세상한테 지는것이아니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힌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웅앙 웅앙 울을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1938.3 여성 3권 3호)

자야는 백석의 사랑을 굳게 가슴에 담고 살아갔다. 자야는 1953년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1955년에 대원각을 인수했다. 그녀는 왜 백석을 따라 만주로 가지 않았느냐는 류시화 시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

했다. “영 헤어질 줄 알았다면 따라갔겠지. 잠깐인 줄 알았어요.” 자야는 “38선이 터지면 기어서라도 가서 산소를 찾을 거예요. 50년 만에 담배를 끊었는데 니코틴보다 그리운 것이 그 사람이에요.”

요정 대원각을 접고 미국에 가서 살던 자야는 1987년 우연히 법정 스님의 설법을 듣고 대원각을 시주하려고 했지만, 법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법정이 고집을 꺾으면서 2년 동안의 개보수를 거쳐 대원각은 법정이 소속한 전남 송광사의 말사인 길상사로 문을 열었다.

자야가 대원각 터를 법정 스님에게 기탁할 당시 약 2만3,140㎡(7,000평)였던 부지의 시가는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금 1,000억 원이라고 해봐야 휴전선에 가로막혀 만날 수 없는 옛 연인 백석의 시 한 줄에 비하면 의미 없는 액수였다. 자야는 “그것 1,000억 원,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말한 뒤 미련 없이 대원각 터를 기증했다.

1999년 11월 자야는 “나 죽으면 눈 많이 오는 날 뼈를 이곳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유언대로 그녀의 유골은 경내에 뿌려졌고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시가 그녀의 공덕비 곁에 서 있다.

성북동은 한용운, 조지훈, 이태준, 박태원, 염상섭, 김광섭, 김용준, 김환기, 윤이상, 채동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북동을 ‘문화예술 자원의 보고(寶庫)’ 또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문학인, 미술인, 음악인 등이 많이 살았던 성북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있으면서도 물이 풍부했다. 필자는 1977년 결혼해서 지금까지 성북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이곳은 도로가 복개되지 않았다. 도로 대신 커다란 바위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수석이 어울린 마을로 복숭아, 앵두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상권이 지금처럼 형성되지 않은 아주 조용한 동네였으며 공기는 아주 맑았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영감

을 얻을 수 있어서인지 성북동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다. 필자는 그들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성북동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필자는 많은 예술인이 성북동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웠듯이 지금도 성북동 골골이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 예술의 꽃이 피어나고 있으며, 이를 면면히 이어나갈 것이고 10년 후, 50년 후, 백년 후에도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불러 질 것이다. ㉠

-

박미산은 시인이자 문학박사이다.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세계일보 “박미산의 마음을 여는 시” 코너를 연재중이다. 시집 「루나의 지도」(2007), 「태양의 혀」(2014) 등을 펴냈다.

참고문헌 : 「김광섭, 시인이란 기억 뒤의 문단건설자」, 홍정선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송명희



우리 동네 행사를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가을 소풍 성북동 문화재야행

오미연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를 나와 터벅터벅 걷다가 걸음이 멈춰졌다.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성북동 문화재야행〉 현수막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다음 날, 사람들을 기다릴 구조물들이 선물상자 처럼 곳곳에 놓여있었다. 행사는 내일부터지만 내 마음은 벌써 설레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었구나.’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지 6여 년이 되면서 언젠가부터 〈성북동 문화재야행〉은 계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밤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

할 무렵이면 〈성북동 문화재야행〉이 찾아왔다. 하지만 먹고사는 직업이 콘텐츠 기획자이다 보니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마저 일을 한다. 매해 ‘올해는 꼭 둘러봐야지.’ 지키지 못할 다짐을 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마음에 던졌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19년, 나에게 〈성북동 문화재야행〉을 선물로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선물이라고 여겨서인지 행사 당일,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며 퇴근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성북동까지 한 시간 반 거리.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결의로 손에 꼽힐만한 칼퇴¹⁾를 감행했다.

부랴부랴 도착한 성북동 입구는 평소의 풍경이 아니었다. 북적이는 사람들과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은 전구들, 음악소리가 익숙하지만 낯선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성북동으로의 가을 소풍이 시작되었다.

“엄마 오늘은 몇 시까지 놀아요?”

사람들 틈에서 들려온 어느 꼬마의 질문이 귀여워서 미소가 지어졌다.

1) 칼퇴근의 줄임말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조금도 지체 없이 바로 퇴근한다는 뜻

그 질문 안에서 오늘은 실컷 놀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묻어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한 체험부스들에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전통놀이 코너에는 아빠와 제기차기를 대결을 펼치는 아이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고, 돌리는 건지 때리는 건지 세 명의 아이가 팽이를 향해 힘차게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딱지치기 코너에서는 딱지가 뒤집어질 때마다 환호성이 들렸다. 전통놀이를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슬쩍 제기를 들어 던졌지만. 난 운동신경이 없는 걸로 결론을 지었다.

구수한 냄새를 따라가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메주를 만들고, 딱딱딱 소리를 따라가니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며 금박체험을 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체험프로그램이 참 다채로운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전통부채 디립선, 전통가오리연, 매듭팔찌, 전통 서책 만들기, 점술, 천연염색, 선잠체험, 전통한복 창작시연, 전통문양 탁본, 태극 목판화 등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체험이 한가득이었다. 콘텐츠 기획자로 이 모든 전통 관련 콘텐츠가 성북동에 있다는 게 놀라웠다.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가진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시간제한이 없었다면 나 역시 밤새 <성북동 문화제야행>에서 놀았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신나게 즐겨야지!’

성북동이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꾸준히 대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어서 조금 더 <성북동 문화제야행>을 더 발전시킬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즐기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결과물, 진행 방법이 가족을 타깃으로 한 아이들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연인 혹은 친구들과 오는 성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콘텐츠는 필요 없을지 등등 생각들이 꼬리가 물었을 때 투어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투어프로그램 사전 예약을 못해서 현장 접수 부스에 가니 끝났다고 한다. 모처럼 달려왔는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투어를 못하다니. 토요일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할 찰나, 전화가 빗발친다. 주말출근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맑은 달빛 아래에서 문화제를 따라 걷는 기회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괜찮았다. 단 하루, 몇 시간 뿐이었지만 <성북동 문화제야행>은 달콤한 가을 소풍이 되어 마음에 반짝이는 추억 하나로 박혔으니까. 더불어 내년에는 좀 더 저녁이 있는 삶으로 진화한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추가되었다. 조금 더 여유롭고 깊이 즐길 수 있는 <성북동 문화제야행>이 기다려진다. 

-
오미연은 성북동에 정착한지 6여 년이 된 회사원이다. 이직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했지만 성북동의 매력에 빠져 이주하지 못하고 고된 출퇴근을 감행중이다.



우리 동네 아트살롱

성북동 주민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60화랑

김정민

“왜 60이에요?”

화랑 간판에 붙어 있는 숫자를 보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60이라는 숫자는 ‘가회동60번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10년 전 처음 갤러리를 시작하며 자리를 잡았던 장소는 종로구 가회동의 60번지였다. 지금은 북촌한옥마을 입구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장소는 어느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작은 갤러리가 감내하기엔 어마어마한 월세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눈물을 머금고 산을 하나 넘어 성북동으로 2018년 이전하게 되었다.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즐겁지만 참 고된 일이다. 10년 동안 200번이 넘는 전시를 했던 지난 공간에서 있던 일을 떠올리며 외부기획 업무 외에 계속해서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논의했는데, 막상 지금의 공간에 자리를 잡고 전시공간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 생각하니 그간 전시 해 온 수많은 작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사무실과 함께 쇼윈도 같이 작은 공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오픈을 준비하며 10년 넘게 사용했던 「가회동60」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도, 계속 쓸 수도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가회동은 버리고 60만 가지고 왔다.

테이크아웃 커피숍인지 사무실인지 공방인지 갤러리인지, 오시는 분들마다 뭐 하는 곳냐고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래서 ‘갤러리 카페’라는 흔한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화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살짝 보이는 우리 동네 화랑, 뭐 그리 부지런하게 전시를 바꾸고 분주하지는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들리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60화랑」은 성북동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 동갑내기 부부가 운영중인데, 재미있게도 바로 옆집이자 몇 십 년 된 점포인 동네 초임 철물점과 세탁소도 부부가 운영하신다.

「60화랑」은 전시 공간의 이름이고, 우리 회사 이름은 「디자인60」이다. 순수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공간기획, 아트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book 디자인, 특히 전시 도록이나 작품 관련 편집 디자인 업무는 오랜 시간동안 해 왔다.

60화랑에서는 작년 개관이후 현재 세 번째 전시를 하고 있다. 이번 소개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 공간에서 가졌던 전시와 작가에 대해 간단히

써 볼까 한다. 작년 7월 개관전은 민화를 소재로 오랜 시간 작업한 것으로 유명한 홍지연 작가의 신작들로 시작하였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의 구분이 없이 이어지는 형태를 보여주며 인연의 끈이나 생의 연속성을 떠올리게 하고 원색의 컬러에 민화적 요소인 새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품들이었다. 민화의 소재에 등장할 법한 새와 심장의 형상, 만다라의 형상 등을 매듭의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한 섬세하면서 유기적인 작품들로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장소의 개관에 뜻 깊은 의미를 주었다.

2019년 1월에는 성북동이라는 지역을 모티브로 한 첫 번째 ‘장소특정적’ 전시로 이동재 작가의 『짓고 쓰고 그리다』 전시를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성북동에 자리 잡고 활동하였던 예인과 문인들인 한용운, 조지훈, 김환기, 이태준, 전형필 다섯 분들의 인물과 연관된 시를 주제로, 이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붙여나간 크리스탈 시드 작업들을 선보였다. 전시가 마무리 되었던 6월에는 『성북동이 품어낸 예인과 문인들』이라는 주제로 이 다섯 분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직접 해설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고, 전시관람 후 작가, 미술평론가, 문화전문가와 함께 작품과 전시에 대해 대담을 갖는 지역연고 예술단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북구청 후원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지역주민 및 미술애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여름에는 공예전시로 문유경 작가의 『LINE & DOT』라는 제목의 도자작품을 선보였다. ‘문빔’이라는 아이디어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유니크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그릇들과 초별기를 노출시켜 무늬를 만드는 독특한 그릇을 제작한다. 일상적 사물인 머그컵, 에스프레소 잔, 접시, 술잔, 도쿠리병 등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선과 점으로 구성된 무늬를 하나하나 그려내어 심플한 레트로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8년 「제6회 서울상징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아이디어상, 2017년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상, 2014년 「제2회 여성공예 창업대전」 금상을 수상하였고 12월부터 방영될 KBS 미니시리즈 「99억의 여자」에 작품이 소개된다.

지난 11월에는 새로운 전시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장소특정적’ 전시로 기획한, 한국화 전공 유한이 작가의 『도-성-사-이 都城間』 전이다. 북정마을의 상징인 서울성곽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이태준의 「성」이라는 수필을 참고하여 이를 시각화하였다. 북정마을의 지도를 직접 펴 놓고 등고선 높이까지 관찰하며 자신이 재해석한 관점으로 성곽에 인접한 성 밖 마을 전경을 적막하고 담담하게 그리는가 하면, 이제는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암문을 투명한 구조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끝없이 이어질 듯한 성벽을 통해 무한함과 허무함을 단순한 필체로 표현해내고 있다. 지난해 성남문화재단 성남큐브미술관에서 「2018 성남의 발견」 선정 작가로 전시를 가졌던 유한이 작가는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투명한 느낌을 주며 구조물이 춤

춤히 겹쳐 있는 중첩적 느낌의 건축물을 섬세한 동양화 기법으로 작업한다. 단단한 구조물들 사이에 기억해야 할 상흔들이 숨어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난 전시에는 성남이라는 도시를 미술관 벽면에 직접 제작하여 지역과 관련된 작품을 곧 사라질 일시적 벽화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내년을 위해 또 새로운 기획을 구상 중이다. 성북동 북정마을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60화랑의 전시와 작품들은 그리 튀지는 않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잔잔하게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가을바람이 분다. 내일은 또 어떤 주민 분이 작품을 보러 오실지 기대하며 소개의 글을 마무리 해 본다. 

-
김정민은 2008년부터 2018년 까지 ‘가회동60’ 대표로, 현재 ‘디자인60’실장, ‘60화랑’ 디렉터로 예술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2015 ‘무현금’ 프로젝트, 2017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박수근과 백남준을 기억하는 창신동길’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 동네 아트살롱

성북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모임창조'

이설

올해 여름, 성북구에 사는 청년예술가 5명이 청년예술단이란 이름으로 모였다.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함께 해볼까 고민하다가, 성북에 청년 네트워크도 있고 예술가 네트워크도 있는데, 청년-예술가들 간의 예술기반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모임창조'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모임창조는, 성북의 청년예술가들이 월 1회 주기로 모여 서로에게 장르의 경계 없이 본인이 사랑하는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레퍼런스 공유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돌아가면서 예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만을 진행

하며, 자기소개 시간은 없다. 작품을 통해 서로의 관심과 취향을 공유할 때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 모임은 매월 첫 주 월요일 저녁에 성북예술가압장 2층에서 진행된다. 8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9월까지 두 번의 모임을 진행했고, 1회당 약 15명의 예술가가 참석하였다. 2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활동 보다는 개인 작업에 치중하는 예술가들이 이 모임에 매력을 느끼고 더 많이 오는 것 같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임이 시작하기 전까지 꽤나 강력한 어색함을 견뎌야한다.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공지가 되어있어서 그런지 시작 전에 서로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덕분에 공유할 작품을 PC로 옮긴 후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상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시작하기 10분 전이 가장 어색하다. 그 이유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인고의 시간 후에 모임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반짝이며, 작품을 공유한다. 최근에 인상 깊게 보았던 전시를 공유하거나,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작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시나 음악을 들려주기도 한다. 쉬는 시간 없이 이야기를 한 바퀴 돌고나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처음 청년예술단 친구들이 레퍼런스 모임을 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막상 해보니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한 사람의 발표마다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질문도 많다.

9월 모임에서 공유된 작품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Chris Burden의 〈Beam Drop〉이라는 작품이다. 하루 종일 거대한 H빔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땅에 내리 꽂는데, 그 느낌이 짜릿할 정도로 강렬했고, 문명과 자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이 많으니, 시간될 때 찾아보면 좋을 듯하다.

모임참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성북예술가압장 2층에서 진행된다. 대상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로 설정했지만, 예술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

문의 전화 : 02-6906-3105 (담당자 : 이설)

-
이설은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전시를 소개합니다
The Knit Club ‘목도리 전’
2019. 11. 20 – 30

17717

더 니트 클럽The Knit Club은 뜨개를 하는 사람들의 작은 소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니트의 또 다른 뜻인 ‘밀접하게 맺어진’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분야 상관 없이 함께 재밌는 프로젝트를 기획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당모의로 시작한 더 니트 클럽의 첫 번째 결과물인 〈The Knit Club-목도리 전〉은 손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도리를 만나볼 수 있는 판매전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물건 중 하나가 목도리입니다.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자 겨울 옷차림에 멋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지요. 손뜨개 작가 박혜심(슬로우핸드), 자수 작가 임소영(더 와일드), 위빙 작가 이정은(코흔), 섬유 작가 이송미정(땀리빙) 그리고 에디터이자 프로 니터를 꿈꾸는 박은영과 윤재웅이 함께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장기와 디자인 특징을 살려 만든 목도리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시와 더불어 세 번의 원데이 클래스가 열립니다. 클래스 시작 전에는 ‘한칸다실’과 함께 찻시간을 갖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차’를 주제로 한국차와 중국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17717 전시 소개 전문 중에서 발췌

The Knit Club 목도리전



이송미정 박은영 박혜심 윤재웅 임소영

박은영 박혜심 윤재웅
이송미정 이정은 임소영

2019. 11. 20 - 11. 30

전시 시간
13-18시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12712
서울 양재구 삼성동
127-12

한재미 클래스
11.20(수) 19~21시
박혜심의 뜨개 재도리 만들기
11.29(금) 14~17시
임소영의 자수 보로치 만들기

11.30(토) 14~17시
이송미와의 레크리컬 한 땀
클래스 시작 30분 전 '한잔다발'과
함께 참시간을 즐기세요.
문의 인스타그램 @the_knit_club







주민 인터뷰

성북동에 사는 독일청년 조나단

홍승완

작년 여름, 성북동에 독일청년 조나단(Jonathan Yainishet)이 이사를 왔다. 인류학이 전공인 그는 연구를 위해 분단국가인 한국을 선택했다. 성북동은 거리에 만국기가 펄럭인다. 대사관저가 많고 글로벌주민센터도 있는 성북동은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동네이다.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단지 성북동에 사는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조나단을 소개하고 싶었다.

승완 :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조나단 : 인류학을 공부하는 동기를 보면 주로 어떤 문화나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문, 사회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다니면서부터는 민족주의에 관심이 생겨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분단국가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주제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승완 : 그럼 언제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나단 : 2015년에 처음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는 관악구에서 1년 정도 생활 했었어요. 독일에 돌아갔다가 2016년에도 다시 와서 판교에서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다시 온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죠.

조나단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한국에 두 번째 방문 했을 때였다. 성북동 청년들의 셰어하우스 ‘따로 또 같이’에 낯선 얼굴들이 모였는데 독일 친구들도 있었다. 조나단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었다. 사람들은 연말과 새해를 기념하며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다. 파티가 끝나고도 2차로 몇몇이 모였다. 한국과 독일의 문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시간차로 독일의 새해를 기다리며 밤새 잔을 부딪쳤다.

승완 :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조나단 : 한국에 와서 어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술자리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초반에는 카톡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잘 모를 때 천천히 사전을 찾아보고 답장할 수 있어서 공부하기 좋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했어용? ~아닌가용?” 라는 식의 카톡 메시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귀엽게 말한 거

잖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문법일까 고민하다가 사전도 찾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알 수가 없어서 한참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외국인한테 이러면 안 되죠!(웃음) 그리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로 끝까지 들어봐야 의미가 전달이 될 때가 많아요.

승완 : 사투리는 어때요?

조나단 : 아직 사투리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사투리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합쳐서 약 30여개 정도 되요. 제가 살던 고향도 사투리를 쓰던 곳이에요. 독일 사투리는 독일 사람끼리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조나단과 첫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우리말을 아주 능청스럽게 잘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방송에 나오는 몇몇들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이 정도로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대부분은 한국어를 몰라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나단은 달랐다. 우리말로 농담을 주고받는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한다. 이번 인터뷰도 오로지 한국어로 대화하며 작성했다. 조나단은 독일에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보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며 Mein Kimchi(독일김치)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회가 된다면 그와 막걸리를 빚어 볼 생각이다.

승완 : 서울의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어떻게 성북동에서 살게 되었나요?

조나단 :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주로 낙성대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어졌고 어디가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

어요. 연구하기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을 생각했었죠. 서울대 근처부터 시작해서 대림, 망원, 당산, 애오개, 삼전동 등이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외국인 친구들은 이태원을 추천했었는데 그쪽은 저랑은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북동은 서울의 중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동네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울 이미지 같지 않아서 좋아요. 한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 오래된 집이나 가게들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북악산, 북한산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이 좋았어요. 동네에서 문석, 승완, 정미, 사리 등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기도 좋고요. 확실히 성북동은 분위기가 특별한 것 같아요. 뭐랄까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친절해요. 예쁜 카페와 맛집들도 많고요. 그런데 의외로 외지에서는 성북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름은 잘 아는데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바로 옆 동네인 대학로를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해요.

승완 : 성북동에 이사 왔을 때 무슨 초대장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조나단 : 글로벌주민센터에서 주민이 되신 걸 환영한다고 카드를 보내줬어요. 다른 지역에 살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게다가 센터장도 독일 분이셔서 반가웠어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대사관저에도 초대 받아서 갔었어요. 1년에 한번 하는 여름파티였는데 신기하게도 고향 와인이 나왔어요.

그의 고향은 란다우(Landau in der Pfalz)다. 와인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성북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조나단과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었다. 다른 동네에서 더 넓고 편한 집을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같은 값으로 성북동의 작은 원룸을 선택했다. 정치와 동네 분위기가 그의 선택 기준이었던 것 같다. 주로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한가할 때

는 동네 곳곳 산책을 한다. 이제는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도 많아졌다. 독일에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성북동부터 소개시켜준다.

승완 : 고향은 어디예요? 독일에서도 이웃들이 가깝게 지내나요?

조나단 : 제 고향은 독일 서남쪽의 작은 시골마을이에요. 저는 별로 시골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생활했어요. 하이델베르크랑 성북동이랑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자들이나 학생, 관광객들도 많아요. 대학원은 괴팅겐(Göttingen)에서 다녔어요. 독일의 지리적인 중심지예요. 인구수는 12만 명 정도예요. 동네에서는 1~2년 정도만 살아도 사람들이 서로 알아봐요. 거기 있을 때부터 서울에 오기 시작했어요. 서울 살다가 괴팅겐 다시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승완 : 한국에는 언제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조나단 :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래도 내년 3월 즈음에는 돌아가야 해요.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등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여수, 목포, 거제, 속초, 남해 같은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안 대만도 여행할 예정이에요.

조나단은 한국 지리도 빠삭하다. 그리고 한국의 인디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 주로 음악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다. 홍대 근처로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한다.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의 인디밴드 잠비나이 콘서트를 다녀와서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나단은 한국이 좋아서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불러도, 주변사람들에게 농담 삼아 그를 ‘한국사람’이라고 소개해도 어색하지가 않다. 한국의 민낯들이 조나단에게는 특별히 더 부끄럽지 않다. 가족끼리 집안 얘기하듯 편안하게 얘기 할 수 있다. 조나단의 매력은 그가 한국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인류애가 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조나단은 지금의 성북동의 모습을 좋아한다. 그래서 재개발이 많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불가피 하더라도 성북동의 기존의 가치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와 새삼스럽게 인터뷰를 하고나니 우리 둘 다 그냥 성북동 주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홍승완은 북악산을 돌다가 경치에 반해서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다. 동네에서 조지훈 시인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음악과 낭독극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북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었다.



주민 인터뷰

나의 최애* 어르신과의 성북동 수다

지강숙

성북동에 온지 막 4년을 넘겼다. 4년여 시간의 큰 소득이라면 길거리에서 만나 안부를 물을 정도의 어르신을 많이 사귀었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인 분이 임정숙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의 유머센스를 좋아한다. 또 어떤 일이 닥치든 어린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려는 모습도 좋아한다. 앞으로도 이런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지강숙(이하 ‘지’) : 선생님이 성북동에서 하신 활동 중 제일 애착이 가는 건 무엇인가요?

1) ‘최고로 사랑하는’이란 뜻의 요즘 줄임말

임정숙(이하 ‘임’) : 저는 성북동의 주민모임 중 하나였던 ‘마을계획단’의 단원으로 있으면서 주민총회, 어린이장터, 공유부엌, 마을음악회 등의 활동을 했고 그 밖의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제일 애착이 가는 활동은 독거노인 돌보는 일이에요. 노인들이 혼자 오래 생활하면 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이 1위일만큼 심각한 문제잖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께 한 달에 4번 전화드리고 1번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후원자들이 기증하는 선물을 전달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있어요.

지 : 저는 선생님을 마을계획단에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동네에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특히 선생님은 일이든 사람이든 다가가는데 거리낌이 없으시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시는 스타일이라 격의 없이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선생님은 제가 바라는 ‘노인상’인데요, 혹시 평소에 ‘나는 이런 청년이 좋더라’라는 선생님의 ‘청년상’이 있으신가요?

임 :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면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청년이요. 30분만 얘기해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은 젊은이들이라도 존경하고 싶어요.

지 : 선생님은 어떤 청년이셨어요?

임 : 나는 재력가이신 아버지의 외동딸로 다 누리면서 버릇없이 자랐어요. 수영, 아이스 스케이팅 같은 운동도 즐기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대학 조정선수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 대학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대학생연합 등산동호회에 가입하게 됐는데 거기서 동국대 철학

과 정종 교수님, 홍익대 미대 김영중 교수님,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시던 이규태 선생님을 다 만났지요. 그 분들이 보여주신 인품을 보며 감동하고 열심히 따랐지. 또 동아리에 예술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미술작품도 보러 다니고, 그 시절 경험하기 힘든 미술전시회나 오프닝 칵테일 파티에도 참석 할 수 있었어. 참 근사한 모임이었지.

그 분들의 영향으로 예술에 대한 안목과 품격 있는 언행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어디 가도 미술관부터 찾아가 그림을 보는데 지금도 좋은 작품 앞에 서면 가슴이 울렁거려. 그 시절 그분들과의 만남의 영향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청년시절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위에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아라.”말해주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큰 기회이고 무형의 자산이 쌓이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 : 그런 모임의 하나로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얼마 전 발족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임 : 주민자치회에서 아무래도 마을의 주요 이슈나 안전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겠지만 모든 활동의 출발은 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젊었을 때 해봤던 칵테일 파티 같은 소소하고 근사한 모임도 좋구요.

또 생활에서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술작품을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기만족을 느끼거든요. 가서 좋은 그림에 가슴 설레는 것도 좋고, 내가 좋아했던 작품이 포스터, 잡지에 나오면 반가움과 나의 감각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요.

뉴욕에 가서 보니 작은 축제라도 온 동네가 같이 즐기더라고요. 우리 성북동이라면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일 즈음해서 퍼레이드를 하면 어

떨까 생각 많이 해요. 세계적으로 축제가 발달된 나라들은 보잘 것 없는 데 퍼레이드라도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치고 흥을 돋워 주더라고요. ‘콜롬버스의 날’이라 그러면 복장도 다 콜럼버시대 의상을 입고, 관련된 것들로 꾸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 것 없는데 주민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해요. 나는 성북동에 그런 게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지 : 성북동은 이미 문화적인 토양이 잘 가꾸어져 있으니 시작만 한다면 잘 꾸려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성북동의 최애(최고로 사랑하는) 장소는 어디세요?

임 : 길상사 좋아해요. 특히 그곳에 얹힌 스토리가. 김영한과 백석의 절절한 러브스크리가 감동적이잖아요. 김영한 씨 한 명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 : 김영한 씨는 단순히 대형요리집 사장이 아니라 여성CEO로서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시인과의 러브스토리까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잖아요?

임 : 스토리 못지않게 분위기도 좋지요. 길상사 식당 위에 쾌적한 카페가 근래 생겼어요. 규모도 넓고 책도 많은데다 커피도 저렴해요. 여름날 저녁에 마을버스를 타고 길상사에 가면 저녁 예불 목탁소리가 은은한 게 정말 좋아요. 젊은이들이 저녁예불에 꽤 많이 오던데 그 모습도 보기 좋구요.

지 : 앞으로 성북동은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까요?

임 : 신문기사를 보니 세계적으로 성북동의 한양도성처럼 마을 안에 있는 도성은 희귀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성북동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동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살아남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

-

지강숙은 성북동의 주민이자 작가이다. 요즘 성북동을 산책하며 회곡을 쓰고 있다.
greenpuspa@gmail.com

임정숙은 지금은 해소된 성북동 마을계획단 부단장을 역임했고, 10월 1일 발대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성북동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하다. 노인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민 기고
십년을 살고서 비로소

박윤희

2009년 봄 성북동으로 이사와 이곳에 살게 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다. 집안 사정으로 2년 동안 서울을 벗어나 살다가 다시 돌아 올 터전을 성북동에 잡게 된 데는 대학로와 가까운 이곳이 연극배우가 직업인 우리 부부에게 지리적으로 편리했던 점과 옛 것에 대한 향수가 남달랐고 옛 마을의 정취가 남아있는 동네를 좋아했던 아내의 취향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딱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성북동 안에서 두 번의 이사를 했다.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성북동의 안쪽 골목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선호하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이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성북동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급한 일이 있어 외출하거나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할 때에는 집까지 오는 피할 수 없는 언덕길이 버겁기도 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할까 걱정도 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은 낮선 오지에라도 와 있는 것처럼 고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북동에 살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성북동 주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이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공연 준비나 그 밖의 일 관계로 불규칙한 생활을 할 때도, 일이 없고 한가한 시간에 주로 집안에서 밀린 일들을 할 때도,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돌아볼 여유를 만들지 않았다. 이따금씩 산책하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네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아름다운 동네의 주민으로서 대단한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내가 그동안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새삼 깨닫고 있다.

같은 직업을 가졌지만 나에 견주어 월등히 많은 시간을 주부로서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시간을 채워야 하는 아내는 나보다 훨씬 더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토박이 주민들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제법 달라진 동네 풍경에 여러 감정이 든다. 어릴 적 뛰어 놀던 모습의 낡은 골목과 거리는 크고 작은 손질로 세련되고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작고 약한 것들에 대한 배려가 새로 들어선 번듯한 건물과 거리 뒤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대화를 아내와 나누기도 한다. 성북동에 살게 된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이유와 그 첫인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성북동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랑에 빠지게 만든 어떤 ‘가치’는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딱히 한마디 말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일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십년을 살고서 비로소 사랑을 느끼게 된 나는 성북동이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 발을 붙이고 살아 보아야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연극인들이 극장이 몰려있는 대학로와 가까운 이곳에 살고 있듯이 성북동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공연장이 있다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 보시길 권하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 극장까지 산책하듯 걸어서 좋은 연극 한 편을 볼 수 있다면 제법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

-

박윤희는 배우다. 어느 연극인들처럼 대학로에 가까운 성북동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고 이제는 비로소 성북동에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1989년 극단 실험극장 입단, 현 단원

44회 동아연극상 남자신인상 수상

19회 거창국제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연극 | '뎨 끝줄 소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오이디푸스' 외 50여 편

뮤지컬 | '맘마미아' '지하철1호선' '모스키토' '렌트' 외

영화 | '벌새' '뽕반' '상류사회' '집으로 가는 길' '신기전' 외





주민 기고

성북동과 함께 자라기

정귀자

함께

그리 흔한 가족사는 아닐 듯하다. 나는 신혼집을 성북동에서 시작했고, 두 아들을 낳고 길러냈다. 그 아들 둘은 모두 덕수 유치원, 성북초등학교, 홍익사대부속중·고등학교,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대학까지 졸업했다. 한 번도 성북동을 떠난 적이 없다. ‘길러냈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을 일이겠지만, 나한테만 ‘더’라는 강한 느낌을 주고 싶은 거다. 유독 애꼴했다는 의미다. 우리 집은 엄청 높았고 작은 체구의 나는 태생부터 크게 출생한 두 아들을 유모차 없이 안고, 업고 키웠다. 성북동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모두 다 그야말로 ‘더’이다. 외출 중에 아이

가 잠이 들었거나 도저히 혼자 언덕을 오를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대학로에서 “더블이요”하고 외쳐 택시를 이용한 적도 있었다. 택시 기사님 둘은 높은 도로를 오르면서 가끔 화도 내시기도, 혹은 크게 껄껄껄 웃으시는 경우도 있었다. 차를 돌려 다시 내려가기가 불편한 지역이라 난 항상 그 차가 잘 내려가는지를 끝까지 쳐다보고 90도 인사를 차 뒤 통수에 대고 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힘들면 그냥 아무 집 대문 앞에서 쉬었다. 재촉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같이 걸어서 올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행동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런저런 모두의 경우에도 적용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하라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한 발자국씩 키도 크고 마음도 자랐다.

성북동은 문화시설이 풍부한 이웃을 가진 성북구의 시작이자 끝

놀이터는 멀었지만 택시도 올라오기 싫어하는 곳이라서 골목은 늘 안전했다. 아이들의 놀이터는 골목이었고 85번(지금2112) 우리 동네 자가용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그 당시에는 창경궁 정문 앞에서 내리는 노선 이어서 창경궁은 그저 우리 집에서 좀 멀게 내려다보이는 공원!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참기름과 간장에 밥을 비벼 김에 둘둘 말고 있는 반찬을 담아 공원에 데리고 가면 어린 것이 들숨을 마시면서 좋아라 뛰어놀다 그 성의 없는 밥을 참! 잘도 먹어줬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대학로라서 수많은 공연 포스터와 연극도 보면서 자랄 수 있었다. 유치원을 다닌 덕수교회 맞은편에는 수연산방이 있고 6년 동안 등하교를 같이한 간송미술관은 아이들이 다닌 초등학교 정문과 나란히 있다. 지금은 DDP로 옮겨 전시를 해서 많이 아쉬운 그야말로 성북동의 자랑이다. 해마다 5월, 10월이면 김홍도와 신윤복을 만나고 미인도를 보면서 자랐다.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은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산 교육장이다.

도서관도 없었지만 버스를 타고 인사동을 지나서 광화문을 보다가 바로 내리면 사직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2004년에 아리랑 도서관이 개관하였을 때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성북구가 발전하는 느낌이었을까 어찌나 좋던지. 아이들은 잘 자랐다.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 똥똥 뭉쳐 잘 이겨내고 어른들도 단단히 성장했다. 세상이 온통 빠르게 바뀌고 옛 모습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성북동은 잘 버티어 내고 있어 고맙다.

성북동의 기억

가끔 일요일 아침 나폴레옹 제과점 빵이 먹고 싶어진다. 연말이면 덕수교회 야외 크리스마스트리 보고 싶고 지나다가 한일문구점 아저씨가 잘 계신지 들여다보게 된다. 초파일이면 범정스님께서 점등식을 알리던 길상사의 연등도 보고 싶다. 수연산방의 특별히 좋아하는 자리는 지금도 누가 앉아서 우리들이 했던 것처럼 추억을 쌓고 있을 거다. 기사아저씨들이 많이 즐겨 찾으시는 쌍다리 돼지불백집. 큰애가 군대있을 때 포장해서 사다 먹인 왕돈까스. 수요미식회도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다. 동네 음식이라고 우리가 몰라 본거다. 뭐든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법인 것 같다. 옛날중국집은 주인이 바뀌었다.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 힘들어 못하시는 건지? 주인장은 바뀌었지만 이름은 그대로인 반도이발관. 동네 아주머니들의 참새 방앗간이었던 백옥세탁소. 동아철물점. 한농정육점. 완보전자 아저씨도 매번 인사를 나눈다.

온 동네 아이들은 다 거쳐 간 리나 피아노 선생님. 하단(평양만두전문) 아저씨는 여전히 주차장 없는 맛 집을 지켜내느라 고군분투 중이시다. 지하철을 타거나 내리면서 튀김집 부부를 보고 옥수수 아주머니는 겨울에는 풀빵으로 만난다. 떡볶이 할머니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하셨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인이다.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서로 얼굴을 알아서 눈인사를 나누거나 덕

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기억할 것도 많고 한참을 안 먹으면 궁금해서 먹고 싶어지는 음식.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사람도 생긴 성북동은 내 고향이자 우리들의 추억이다. 내 삶의 대부분의 기억들이 여기에 제일 많다.

세월과 반대로 사는 느린 사람들

내 고향 성북동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길상사에서 성가정입양원에서 성당 혹은 교회나 학교 부녀회에서 오래도록 봉사 하시는 분들, 지역을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성북동 친구들은 ‘이사를 가서 열마를 벌었다’는 대화가 사실 어려운 동네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지만 그와는 반대로인 사람들이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치로 따지면 바보들이지만 난 느리고 안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나마 세상의 속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즘 빌라들이 쪽쪽 생기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태워다 주는 동네였지만 지금은 아는 척하기가 쑥스럽다고 해야 할지 좀 어색한 동네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다. 성북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서른 살이 넘었으니 아주 긴 시간이 지나 간 거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그때 각각의 일에 경쟁자였겠지만 지금은 모두들 건강하고 잘살아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30년 이상을 함께 지켜 봐왔기에 그건 친족 이상의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지 싶다. 마치 가족처럼.

내 꿈

예전 골목에서 아리랑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의 딸은 지금 반도이발관 맞은편에서 마카롱 가게를 하는데 달지도 않고 쫄깃한 것이 아주 맛나서 소문이 자자하더니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큰아이 성북초등학교 동창 엄마들 열 한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 있는데 성북동 오래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름이 ‘성오모’이다. 정작 아이들은 무덤덤한데 어른들은 지금껏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중 한 명의 딸은 시집을 가서 성북동에 살고 있고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고 들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행복한 웃음까지 우리 동네를 채우기 시작한 거다. 춘천으로 과주로 이사를 가서 사는 성북동의 오래된 친구들도 있는데 성북동에 있는 두 명의 친구들은 이사 간 친구들과 영상으로 그 딸에 딸의 행복한 영상을 본다. 아이들이 군대를 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미국, 일본, 멀리 독일에도 가 있지만 성북동의 한옥에 모여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한다. 성북동에서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의 긴 시간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폴레옹 밖에 없던 지역에 소문난 빵집도 여럿이고 예쁜 카페와 맛난 음식점에 몇 개의 소문난 잔치도 있고 예술을 전공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눈길도 저절로 가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성곽을 따라서 걷기도 좋아졌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모습도 착하고 느린 사람들도 많이 변하지 않으면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귀자는 노후설계사 연습생이고, 하는 일은 마음 가는 대로 가끔 글도 쓰고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신혼 때부터 32년째 살고 있는 곳이 성북동 높은 곳이라 친구들에게 ‘성북동 산장지기’라고 불린다.





우리 동네 쉼프
파스타의 모든 것

계세연

1. 파스타의 기원

파스타의 대표인 스파게티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동방견문록>의 저자로 알려진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1274년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 현재의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원나라를 창건한 쿠빌라이 칸을 알현하고, 원나라를 섬기기로 하였다. 그는 중국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쿠빌라이 칸에게 보고했다.

그는 1290년에 원나라의 공주가 일한조로 시집을 갈 때, 그 일행과 함께 중국을 떠나 그대로 이탈리아에 귀국했다. 그때, 그가 중국의 면을

이탈리아에 가지고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스파게티로 정착했다는 것이 스파게티의 중국 기원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원은 중동 근처에서 전래된 것이라든지, 고대 로마의 죽이 기원이라든지 설은 분분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삶은 요리의 총칭으로 마케로니(maccheroni)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수제비 같은 모양에서부터 베르미첼리(vermicelli)라고 이름이 붙은 가는 끈처럼 생긴 것까지, 오늘날 파스타라고 총칭하는 것을 마케로니, 즉 마카로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마카로니의 어원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보리 요리 마카리아(makaria)라고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베르미첼리, 영어로 버미셀리는 이탈리아어로 지렁이를 뜻하는 베르메(verme)의 파생어인데, 현재는 스파게티보다 가느다란 면을 가리킨다. 참고로 즉석면으로 익숙한 누들(noodle)이란 영어 단어도 실모양으로 생긴 별레를 뜻하는 ‘nudel’이 어원이다. 파스타의 대표 격인 스파게티(spaghetti)는 끈을 뜻하는 ‘spago’가 어원인데, 이 단어가 이탈리아에 나타난 것은 18세기 전반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 파스타의 의미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어 파스타(pasta)는 ‘반죽’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스파게티와 같은 밀가루 식품뿐 아니라 빵이나 파이의 생지도 파스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스파게티 종류나 빵, 파이 생지를 모두 파테(pate)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보통 파스타 종류는 이탈리아어를 그대로 쓰고, 파이 생지는 도우(dough) 그 밖의 반죽한 제품은 페이스트(paste)라고 구별해 쓴다.

이 외에도 파이를 뜻하는 스페인어 파스텔(pastel)이나 독일어의 파스테테(pastete) 등, ‘반죽’에서 유래하는 단어는 정말 많다.

3. 파스타의 종류

파스타는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긴 면, 짧은 면과 속 채운 면 등으로 나눈다. 그리고 건조 여부에 따라서 건면과 생면으로 나눈다.

이탈리아에는 20개 주가 있는데, 각각의 주마다 주로 만들어 먹는 파스타의 종류가 다르고, 우주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가짓수만도 약 450여 가지나 된다고 하니, 면요리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파스타 디자인 대회를 통해 새로운 파스타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4. 파스타와 토마토의 만남

토마토는 안데스 지방이 원산지인 가짓과의 식물이다.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져왔지만 좀처럼 식용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상식물로 재배되던 토마토를 처음 먹은 사람은 이탈리아인이다. 스페인 사람이 새로운 식물을 유럽으로 가져왔을 당시, 나폴리왕국은 스페인령이었다. 그런 이유로 토마토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식용으로 재배되었다.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프랑스에서 채소로 인정받고, 토마토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보급됐다. 토마토는 열을 가해도 그 상큼한 산미를 잃지 않기 때문에 채소보다는 오히려 소스의 재료, 즉 조미료로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에 나폴리에서는 파스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현재의 파스타를 이탈리아 국민음식으로 일컫는데, 경질밀인 세몰리나(semolina)를 원료로 만들어 썩는 맛이 있는 건조 파스타는 원래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의 음식이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파스타를 삶을 때도 ‘알 덴테(al dente)’로 삶아 먹는다. 그것이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진 데는 파스타와 토마토의 행복한 만남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5. 파스타와 소스의 궁합

소스는 영어나 프랑스 모두 소스(sauce)인데, 어원은 라틴어로 소금을 뜻하는 ‘sal’에서 파생한 라틴어의 ‘salsa’이다. 이 말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에서도 그대로 살사(salsa)다.

토마토를 사용한 이탈리아의 살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포모도로(pomodoro)’나 여기에 앤초비를 넣은 ‘마리나라(marinara)’가 있다. ‘살사 마리나라(salsa marinara)’는 ‘바다의 소스’라는 뜻이다. 프랑스 요리의 소스 에스파뉴처럼 마리나라는 수십 종류에 달하는 소스를 만들어내는 소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살사 지타나(salsa gitana)-집시식 소스’는 살사 마리나라에 검정 올리브를 첨가한 것이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볼로네제(bolognese)-볼로냐식, 흔히 말하는 미트소스’처럼 지명을 따거나, ‘봉골레(vongole)-

바지락을 뜻함’처럼 재료명을 그대로 쓴 단순한 명칭이 일반적인데, ‘집시식’처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름도 간혹 보인다.

달걀노른자와 생크림, 판체타로 만드는 유명한 ‘카르보나라(carbonara)’는 거칠게 간 후추가 숯처럼 보인다고 해서 ‘숯불구이식’이라는 뜻이 됐다. 펜촉처럼 끝이 뾰족한 모양의 펜네에 잘 어울리는 ‘아라비아타(arrabiata)’는 ‘아라비아식’이 아니라, 고추의 매운맛이 ‘열 받게 한다’는 뜻의 살사다.

6. 코리안 파스타

양재천변, 한때는 파스타 전문점들로 넘쳐났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파스타를 즐겨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스파게티가 면의 일종이며, 파스타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파스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브라운관을 스쳐간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의 파스타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

아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진 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실크로드에 맞먹는다는 <누들로드>를 거친 파스타. 이 땅에 건너와서는 팔자가 한층 더 기구하다.

일단 국물이 흥건하다. 그렇다. 소스 아닌 국물이다. 최소한의 점성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또 꾸준히 흥건하다. 정말 생크림으로 만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자칭 크림소스 파스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올리브유 바탕인 것조차 기름이 뽕뽕 뜬 국물 위에 올라앉아 있다. 까르보나라가 그렇다. 계란 노른자와 파르마산 치즈가 딱히 덜 느끼할 것도 없는 우유크림에게 자리를 내준 것도 모자라 접시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다. 매일 아침 각자의 암탉이 낳아준 싱싱한 계란을 들고 갱도에 밭을 디뎠을 광부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다.

이렇게 국물이 흥건한 파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대세인 이유는 아주 간

단하다. 그 파스타의 핵심인 면과 그 재료인 밀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우리의 국수 문화와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 혼동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가 코리안 파스타다.

우리의 국수는 부드러운 묵념감을 기본으로 기분 좋을 정도의 씹는 맛, 또는 쫄깃함이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대부분 국물 위주고, 비벼먹는 종류라도 양념장이 최대한 국물에 가깝게 물기가 자작자작하며 촉촉하다. 연한 밀로 뽑은 면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주는 궁합이기 때문이다.

파스타에 쓰이는 밀은 우동이나 소면, 또는 빵이나 케이크의 원료인 연한 밀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 그래서 이름마저도 라틴어로 단단하다는 뜻의 두럼(durum) 밀이다. 이를 빵은 가루가 세몰리나(semolina), 라틴어로 밀가루를 뜻하는 'simila'에서 비롯된 말이다. 알곡이 단단한 탓에 세몰리나는 연한 밀을 빵은 것처럼 곱지 않고 물을 더해 반죽해도 단단하고 뻑뻑하다. 따라서 수타면처럼 늘려 뽑을 수 없으니 글루텐 함량이 적어 부스러지는 메밀 면처럼 압출, 즉 틀에 반죽을 넣어 누르는 가공을 거친다. 이를 말리면 슈퍼마켓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파스타면이 된다.

파스타면은 소면처럼 쫄깃하거나 부드럽지 않고 꼬들꼬들하다. 그게 바로 특유의 매력이지만 대신 묽은 국물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혹시나 부드러워질까 오래 삶으면 짧게 부서지듯 끊어져버리니 스파게티나 링귀네처럼 긴 면이라면 포크로 감아올릴 수도 없다.

이렇게 파스타면과 국물이 걸돌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삶아서 호화된 면의 겉에는 서로 엉겨 붙게 만드는 전분이 남는다. 연한 밀로 만든 면이라면 서로 달라붙고 엉기지 않도록 삶은 뒤 찬물로 씻어 전분기를 말끔히 걷어 내줘야만 한다. 하지만 파스타의 경우는 정반대다. 남은 전분을 행귀내 버리면 제아무리 점도가 높은 올리브

유, 버터, 돼지기름 등의 지방이라도 면에 달라붙지 않는다. 그 어느 파스타 포장지의 레시피에도 소면처럼 '찬 물에 행군다'는 순서가 없는 이유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병폐는 다양성의 부족이다. 그렇게 우주의 별처럼 많은 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성 때문이다. 같은 세몰리나 반죽으로 만든 건면이라도 모양이나 길이에 따라 식감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파스타는 거의 대부분 한 종류의 면, 그것도 흔해빠진 스파게티다. 20년 전의 파스타 전문점의 시대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길이나 두께, 재료에 따라 더 잘 어울리는 소스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건더기가 크거나 크림, 또는 치즈를 바탕으로 해 걸쭉한 소스는 가늘고 둥근 스파게티보다 넓고 납작한 페투치네에 더 잘 어울린다. 표면적이 넓으니 소스가 훨씬 더 잘 달라붙기 때문이다.

두럼밀의 단단함은 파스타 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파스타는 대부분 싱겁다. 세몰리나로 만든 건면에는 나트륨이 아주 조금 들어있거나 아예 없다. 결국 파스타면에는 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이유는 높은 단백질 함량 때문이다. 세몰리나 면을 뽑을 때 반죽에 소금을 더하면 더 단단해지니 가공 또한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면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 법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렇게 면에 모자란 간은 삶을 때 반드시 소금을 더해 맞춰줘야 한다. 간을 맞추는다고 짜장면처럼 소스를 수북이 올려봐도 단단한 면의 속까지 베어들지 않는다. 면을 삶을 때 바닷물처럼 짠물이 필요하다. 1인분 파스타면 100g 기준으로 물 1L, 소금 15g이 기준이다.

때로 달라붙는 걸 막기 위해 파스타 삶는 물에 기름을 더하라는 레시피도 종종 있는데,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

다. 대부분의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고 위에 뜨니 별 효과를 못 미치며, 혹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면의 표면에 막을 이루어 소스가 달라붙는 걸 막기 때문이다.

7.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었으면

요즘은 파스타를 파는 전문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카페에서도, 심지어는 분식점에서조차도 파스타를 판다. 퓨전음식이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재료의 조합으로 탄생하는 음식이든 맛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파스타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원칙만 지켜주면 된다. 소스가 파스타를 기다려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한국은 떠난 파스타를 기대한다. 

-
계세연은 돈암초등학교 33회 졸업생으로 동소문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었고, 최근 새롭게 동소문동에 파스타 가게를 오픈해 '1년간 100가지 파스타'에 도전하고 있다.

아삐에디(a piedi) 동소문로6길 4 (1층, 삼선시장 내 횃집과 슈퍼 사이)

편집 후기

편집후기가 왜 안 써질까?

차정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는 일 년에 두 번 나오는데요. 올해 나온 13호와 14호, 그 사이가 유난히 더 멀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치 한 해가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제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는 여유 있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선택을 했던 제가 최대한의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랄까요. 마을 잡지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호를 돌이켜보니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네요. 기획에서 원고작성, 원고편집, 교정까지 다 마친 시점에서 제가 부족했고 놓치고 간 것들이 보여서 자꾸 반성하게 되네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에 참여한지 2년이 되어 가네요. 편집 위원님들과 친해지기 위해 밥 먹는 자리는 꼭 빠지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은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도 살펴보았는데 지금 다시 봐도 흥미로운 기획들이 많았어요. 야생화탐방기,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가고 싶단 생각도 들더라고요.

7년 동안 마을잡지를 발행하면서 일정한 콘텐츠들이 정해졌는데요. 대체로 역사문화, 골목탐방, 특집기사, 지역이슈, 주민기고, 주민 인터

뷰, 전시 소개, 가게 소개 등의 코너예요. 새로운 기획이 없을 때는 이 코너에 맞는 기사만 찾아도 한 권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시작할 땐 ‘재미있게 해야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은 여기 어울릴까’ 어떤 한계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틀에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담았던 내용과 형식에서 벗어난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무엇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새로움을 찾는 것이 새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아껴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무척 궁금합니다. 마을잡지를 만들다보면 주민 분들에게 잘보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그 자리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웃음) 힘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재미 붙이고 동력이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

차정미는 성북동천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운영담당자 겸 본지 편집위원으로 올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14호 <비매품>

2019년 12월 11일 발행

편집위원 | 김기민 김철우 박진하 장영철 차정미 최성수
교정·교열 | 김기민 차정미

디자인 | 17717 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채널 @성북동천

웹진 brunch.co.kr/magazine/seongbukdong